

여전히 학내에 만연한 성폭력

의명 커뮤니티를 장악한 혐오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탄압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드레스코드

블랙

5월 30일 목요일 늦은 7시

배배배로 광장(중앙마루)

Feminism Organization in CAU

FOC, 그게 뭔데?

FOC?

FOC는 '중앙대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 위원회'로, 학내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폭력, 혐오발언 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학생 사회 내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첫번째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는 FOC라는 영어 명칭을 쓰지 않고 '중앙대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중성조)'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현재는 **총학생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위별 성평위, 왜 필요한가요?

성폭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공문화된 성폭력 사건만 9건 이고,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폭력 사건이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 단과대는 여자애들이 모두 남자 같아서
(외모 비하로 수치심을 주는 발언)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 한다."

불과 작년에 모 단과대학 대표자가 자랑처럼 떠들었던 말입니다. 여전히 어떤 단위에선 외모 품평과 성희롱을 당해도 의연하게 넘어가야만 하고, 혐오발언을 제지하는 것이 유난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솔한 2차가해와 대표자들의 잘못된 성폭력 사건 대응 사례는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을 남겼고, 이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숨거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은 **법원이나 인권센터보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위 내 성평등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위 내에 **성폭력 대응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 단위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며 **성평등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피해 사실을 묻고 숨는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